평화기류 타고 뜨는 경기북부지역 접경도시모델 '트윈시티'가 대안

美·멕시코 트윈시티 선례 분석
건설·교통 등 고차 서비스 성장
파주-개성 등 중심지 개발 제안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면서 남북 경제협력과 경기북부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트윈시티를 모델로 경기북부를 3대 트윈시티 개발 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에서는 13일 미국·멕시코의 트윈시티 사례를 분석하고, 경기북부의 개발 비전과 전략을 담은 '남북협력시대의 경기북부 발전전략 : 트윈시티로 개발해야' 보고서를 발표했다.

트윈시티(twin city)란 국경지대에서 짝을 이루며 마주한 두 도시를 지칭한다. 미국-멕시코 국경의 트윈시티 대표적 트윈시티로 샌디에고-티후아나, 유마-샌루이스, 애리조나 노갈레스-소노라 노갈레스등이 있다.

미국 국경도시에서는 건설, 도 소매, 교통, FIRE(금융보험부동산), 개인 및 비즈니스서비스 등 고차 서비스의 고용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멕시코 국경도시에서는 기계 전기부품 조립공장 등 제조 기능이 발전하여 유기적인 분업관계를 형성했다.

이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이 남북이 당분간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면서 평화와 교류를 진전시키게 된다면 미국-멕시코 트윈시티 발전 사례를 바탕으로 경기북부의 도시간 거리, 지형, 교통로 등을 고려하여 3대 트윈시티 개발전략 구상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북부의 트윈시티 개발전략으로는 ▲경의축의 파주-개성을 '(가칭)하나의 경기 남북평화시'로 추진하여 한반도 경제권의 미래 중심지로 개발 ▲한강하구-서해축의 김포강화-개풍해주를 연안물류 및 관광 거점으로 개발 ▲경원축의 연천철원-철원평강을 대륙물류와 휴양도시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북부 트윈시티 구상은 그동안 분단의 고통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경기북부를 한반도 경제권의 미래 중심지로 구축하는 첩경이 될 것이며, 그동안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 주민에 대한 보답의 길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 북부=김승열 기자 kimsy@metroseoul.co.kr

월미도 놀이기구 '개선필요' 54건 적발

바이킹 브레이크 손상 등 보수 지적

인천 월미도 '썬드롭' 추락 등 사고 후속조치로 이뤄진 놀이기구 전수점검 결과 총 54건의 개선필요 사항이 적발됐다. 또한 당장 안전에 영향은 없지만 관리를 요하는 권고사항이 68건 지적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광역시 중구청은 지난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월미도 유원시설 민관합동 특별점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월미도 소재 6개 유원시설업체가 운영하는 유기기구 81개 전체와 영업장 내에 설치된 관광객 이용 편의시설이다. 민관합동점검단에는 문체부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한 2개 기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안전보건진흥원) 검사 책임자, 업계 전문가(이월드, 통도환타지아), 학계 전문가(유원시설 안전관리 자문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점검 결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4건이 '개선 필요' 사항으로 지적됐다. 예를 들면, 놀이기구 '바이킹'의 제동장치인 브레이크 호스가 열화 손상돼 화재 사고 위험이 있어 교체가 필요했다. '허리케인'이라는 놀이기구에서는 V벨트 교체와 함께 바닥 하부 지지부의 균열이 생겨 보수가 필요했다.

더불어 점검일을 기준으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일상적인 주의 관찰과 관리를 요하는 68건이 '특이사항'으로 권고됐다. '타가다디스코'라는 놀이기구는 이를 구동하는 조작버튼의 명판이 미흡해 오동작의 위험이 있었다. 이에따라 명판 재부착이 요망됐다. 또한 또 다른 '바이킹'에서는 이용객 안전을 위해 선체의 스윙편각이 70° 이내로 운영토록 관리가 필요했다.

지적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24일까지 사업주가 자체적인 개선 조치를 취한 후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며, 이후 시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민관합동점검단의 불시점검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외부에 표출된 안전위해요소를 발견하고 개선하는 목적 외에도 일일점검, 안전요원 교육 등 일상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며 "법·제도적 정비와 함께 사업주의 자체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해 안전한 놀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진희 기자 valere@

거북등처럼 갈라지는 저수지

13일 오후 전남 나주시 왕곡면 신포 저수지가 가뭄에 말라 거북등처럼 갈라진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이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통계 결과 저수율 0%를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립미술관장 '낙하산' 인사 배제"

이용섭 광주시장

"미술관 전문경영인 임명할 것"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광주시립미술관장에 연고주의를 배제한 최고의 미술관 전문 경영인을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13일 기자브리핑룸을 찾아 "광주시립미술관장 임명에 낙하산 인사는 없다"며 이 같은 인사 원칙을 밝혔다.

광주시장은 "그동안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전문경영인 등을 임명해온 다른 시도와는 달리 줄곧 지역출신화가들이 관장을 맡아왔다"며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문제도 많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광주미술이 지역의 한계를 뛰어 넘어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 미술계에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광주시립미술관장이 혁신의 아이콘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정하고 청렴하며 전문성을 갖춘 미술관장의 임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이번 미술관장은 광주미술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발전토대를 놓을 수 있는 국제적 안목과 전문적 리더십을 지닌 최고의 미술관 경영 CEO를 모시고자 한다"라며 "시장인 저를 비롯하여 광주시가 지인 등을 추천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며 인사 청탁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아울러 "광주가 문화수도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고의 미술관 전문경영인 등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

"반려동물 심장사상충 조심하세요"

인천 DMS서 심장사상충 모기 확인

연수구 센트럴파크 /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에 설치된 모기자동계측기(DMS)에서 채집한 모기에서 심장사상충이 확인돼 반려동물과 산책 시 감염에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심장사상충 감염증은 모기에 의해 혈액으로 매개되며 개와 고양이의 폐동맥과 우심실에 기생하면서 혈액순환 장애를 초래하고 숙주의 면역반응을 일으켜 심폐질환을 야기하는 소모성 질환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에서는 인천시민의 심장사상충 예방에 대한 현수막을 관내 7개 공원(인천대공원, 송도센트럴파크, 청라호수공원, 자유공원, 송현근린공원, 다남체육공원, 수봉공원)에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DMS는 이산화탄소를 유인제로 해 암모기만 선택적으로 유인해 채집 및 계측하는 장비로, 현재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내 120지점에 설치해 운영중이다.

이 중 주요 공원에 설치된 6개 지점에서 5월부터 7월까지 9,952마리 모기를 채집해 유전자검사법(연쇄효소중합반응)으로 심장사상충의 DNA 존재 유무를 검사했다.

개, 고양이에 치명적이지만 동물병원에서 판매하는 예방약을 정기적으로 투약하면 99%에 가깝게 예방되는 질병으로 주기적으로 예방약을 처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관리법으로 알려져 있다.

긴 여름이 지속되는 올해,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심장사상충 감염위험도 조사를 10월까지 진행하고 향후 반려동물 공원 등으로 검사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인천지역 반려동물 사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성남시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17억 투입

성남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에 4건이 선정돼 모두 9억5000여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시는 이에 탄력을 받아 연말까지 자체 예산 7억5000만원을 더한 총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펴기로 했다. 지역 내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100명 이상을 취업 또는 창업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추진 사업은 성남형 청년 인큐베이팅(인원 30명), 청년 두런두런(Do learn, Do run) 취업 분야(44명)와 창업 분야(10명), 청년가게 및 청년예술창작소(미정) 등 4개 분야다.

이들 사업은 참여 신청한 사업장에 청년 인력을 배치해 9개월~3년간 업무 경험을 쌓도록 한 뒤 다른 민간 기업에 취업을 연계하거나 창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해당 사업장에 청년 1명당 인건비(연 1125만~2400만원), 직무교육비(연 200만~300만원) 또는 창업공간 리모델링비 등을 지원한다.

한편, 4개 사업 중 성남형 청년 인큐베이팅은 참여 사업장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사회적기업 등 18곳이 확정돼 오는 8월 20일까지 청년 30명을 모집한다. 분야별로 사회복지 18명, 마케팅 4명, 청소년 5명, 홍보·디자인 2명, 환경 1명을 뽑는다. 대상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하면 된다.

이 외에 청년 두런두런 취업과 창업 분야는 8월 말 참여 사업장 모집·선정 뒤 9월 중순에 청년들의 신청을 받는다. 청년

가게 및 청년예술창작소는 오는 12월 말 수정구 신흥역 인근에 '성남시 청년지원센터'를 설립한 뒤 세부 일정을 잡아 추진한다. /경기=김승열 기자